

제 107 호

대림 제 3 주일

1974. 12. 15.

# 순정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법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강 료】

## 『예수여, 여기에』



박 진 량 신부

예수여, 여기에 탄생하소서! 믿는 이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과 손과 발에도 탄생하소서! 그래야만 당신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 지겠습니까.

예수여, 믿는 이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터에도 탄생하소서! 그래야만 이 세상이 당신 아버지의 뜻대로 발전하겠습니까.

예수여, 믿는 이와 믿는 이의 사이에 뿐만 아니라,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사이에도 탄생하소서! 그래야만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당신 아버지를 합당하게 공경하겠습니까.

예수여, 늙고 병든 사람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사랑을 속삭이는 젊은 연인들 사이에도 탄생하소서! 그래야만 그들이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희생을 깨닫고, 그들의 정열을 쾌락과 허영에 불태우지 않을 것이며, 바람직한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여, 유치원과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도 탄생하소서! 그래야만 선생과 학생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교부와 교육위원회 안에도 탄생하소서! 그래야만 일선 교육자들이 양심대로 소신껏 맡은 학생들을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여, 성당과 예배당 안에 뿐만 아니라, 신문사와 잡지사 안에도 탄생하시고, 라디오와 텔레비 방송국에도 탄생하소서!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사물을 올바르게 알고 판단할 수가 있겠으며, 진정한 사회적 양심이 형성되고 위선과 불신사조가 없어지겠습니까.

예수여, 회사와 공장에도 탄생하시고 관공서와 상점에도 탄생하소서! 그래야만 근로자와 기업주가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여, 정부 지도자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탄생하시고, 국회와 법원에도 탄생하소서! 그래야만 그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청과 부패를 없애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이리 창인동 본당 신부>

### \* 이 주일의 미사 \*

#### (1) 개회식

□ **입당송**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왔으니,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이사야 35:1-6<sup>a</sup>, 10)

하느님이 몸소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나.

□ **창세기** ④ 주여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억울한 사람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도다. 주님은 사로잡힌 이를 풀어 주시도다 ④

□ **제2독서** (야고브 5:7-10 성서 p. 527)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왔으니 마음을 굳게 하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의 성신이 내 위에 계시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 **복음** (마태오 11:2-11 성서 p. 23)

오실 분이 당신이오니까?

#### □ 신자들의 기도

1.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사랑이 메마른 곳에는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 불의와 부정이 있는 곳에는 정의와 진리를 꽃피우도록 실천하는, 신앙인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④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정의와 진리의 외침으로 인해 원리를 박탈 당하고 감옥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굶릴 줄 모르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모든이에게도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받아드려 모든이가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도록 은총주소서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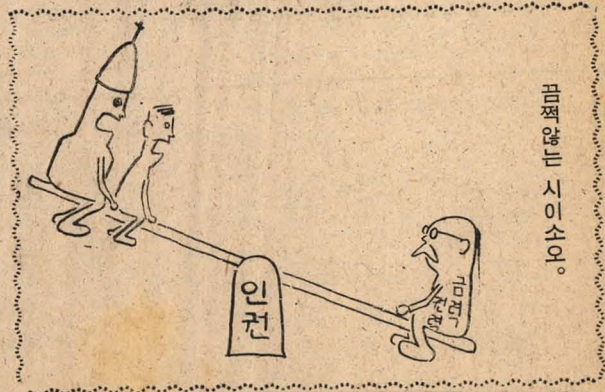
3. 가난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뜨거운 사랑이 더욱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이도 한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게 은총주소서 ④

+ 주여,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에 맞는 바를 청하게 하시고 또 청하는 바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3) 성찬의 전례 □ 불린 □ 성찬식

□ **영성체송** 소심한 자들아, 우리 친주 몸소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용기를 내어 무서워 하지 말라.

### \* 순정이 산책 \*



끔찍한 시이소요.



#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서를

김 정 호(스테파노)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시오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마르코 10 : 14-15)

독서는 인간의 양식이다. 우리는 독서로서 인간 성숙  
의 필요로움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더 “나”의 성장을 위  
한, 또한 살찌우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람은 책을 안읽는다고 한다. 통계적으로도 모국  
국민 독서량의 40분의1에 불과하다고 한다. 천주교 신자  
들도 예외가 아니다. 성서와 성가책을 제외하고는 교회  
서적이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신자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초스피드시대인 현대의  
생활에 쫓기다 보니 책을 읽을만한 시간적 이유가 없을  
것이고 가뜩이나 각박한 주머니 사정에 책값 또한 비싸  
니 책을 살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또 이유를 붙이  
자면 한가지, 그것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되 도무지 어  
려워서 읽을 수가 없다는 점...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신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면이며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는 성서를 읽어야 한다. 마치 어린이의 마음과 같이 순  
수한 진리 원천의 성서를 읽어야 한다. 날마다 신문을  
보면 험기증이 생긴다. 전쟁, 부정, 부패, 이권쟁탈을  
위한 추악한 투쟁. 그러나 성서엔 어린이의 마음과 같이  
순수한 마음, 하느님의 말씀 그대로 깨끗한 사랑이 있  
다. 우리 마음속에 찌릿하게 파고드는 진실한 인간의 높  
고 넓고 깊은 하느님의 말씀을 성서엔 간직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세파에 시달려 더러워졌을 때, 우리의  
가슴이 증오심으로 타오를 때, 우리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봄에 돋아나는 새싹을 하루종일 들여다  
보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두뇌가 잡다한 서적  
신문, 잡지들로 부터 얻은 것으로 둔탁해졌을 때 우리는  
먼 옛날로 돌아가 어린이의 깨끗한 마음으로 성서를  
읽어야겠다. 그래서 성서와 같은 어린이처럼 모든 것  
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의 마음은 하느님의  
마음, 인간의 모든 악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이기 때문  
에, 우리 모두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서를 읽어  
나 자신을 성스럽고 그리고 풍요로운 살전 나를 성장 시  
키도록 노력해야겠다.



# 대 립 절

정 승 현 신부

▲대립절(待臨節)은 물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자들은 흔히 예수님의 성탄  
(성탄축일)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교회는 대립절동안 예  
수님의 오심을 두가지로 기념한다. 하나는 2000년전에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기념하는 것이  
요,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세상 마칠 때에 주님으로 다  
시 오심(재림)을 기념하는 것이다.

▲대립절은 회개의 시기이다. “회개하십시오. 하느님 나  
라가 가까웠습니다.”(마태오 3, 2; 마르코 1, 4와 루가  
3, 3 참조).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으며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된 하  
느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누구나 회개해야 하며 회개  
없는 대립절은 무의미 하다.

▲12월은 또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  
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한 해를 보내는 마  
음은/가슴 속을 조용히 비어있게 하고/그 속에 새로운  
무엇을 받아들여/넉쳐 흐르게 하는 마음... /잘못을  
이키는 마음은/스스로 용서를 바라는 마음/스스로 용서  
를 바라는 마음은/이미 용서를 받은 마음/이미 용서를  
받은 마음은/이미 은총을 받은 마음...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새해를 맞으려는 마음/새해를 맞으려는 마음은  
/이미 풍성한 무엇을 받고 있는 마음... (박성룡의 “한  
해를 보내는 마음”에서) 12월은 회개와 은총의 달이다.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또한 주께서 오시는 날이  
다.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기  
다린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나는 주님의 선의(善意)를  
믿고 기다린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날까지/당신을 기  
다리며 있는 날까지/무한으로 오실/분이며/당신의 사랑  
을/우리가 믿습니다/다시 한번 뜨겁게 믿습니다/氷原의  
새벽에(홍윤숙의 “크리스마스頌歌”에서)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묵시록22, 20)

\* 교형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③ 6094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③5011 찻집 ③5013  
김 원 준(야고버)

◎ 교형 여러분의 집 ◎

##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③ 6289

□바티칸의 가르침□

□인공유산□



## 인공유산 자유화 반대선언문의 요약

### 교황청 신앙교리 성성 발표

1. “하느님은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산 사람들의 멸망을 즐거워 하지 않으신다.” (지서1 13)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 전통은 영원히 계속하여 인간 생명은 그 출발에서부터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 걸쳐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직접적 낙태는 절대로 배격되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직접적 낙태는 엄격히 단죄하였다. 생명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저주할 죄악이다.”

2. 인간 생명의 존중은 그리스도교 신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이성이 이것을 요구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은 자기 개인의 이득을 사회의 공동선에 충족시켜야 하지만, 사회는 인간의 최종 목적이 아니요, 오히려 인간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의 권리이다. 이 권리는 타인이 인정함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선행하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존중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부모의 생명이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3. 신법과 인간 이성은 무죄한자를 직접 죽이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 인공 유산을 합리화 하려는 어떠한 이유든지 이미 시작된 생명의 권리를 유린할 수 없다. 어린이의 장래에 대하여 부모를 위시킨 그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 없고, 부모라도 자기 권리로써 태아의 생명을 죽음으로 바꿀 수 없다. 그 어린이 자신도 장성한 후에 자살을 택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4. 오늘날 인공유산을 자유화 시키려는 이유들은 인공유산의 합법화를 정당화 시키지 못한다. 태아의 생명은 여론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사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인간 생명을 말살할 수 없다. 법률은 태어나는 모든 인간 생명을 언제나 어디서나 더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여건을 개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공유산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이고, 명백스러운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5. 그리스도 생명관은 현세 생명이 국한될 수 없고 현세 생명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영생을 최도로 생명 문제를 판단한다. 모든 선의의 인간들과 특히 크리스찬은 이러한 불행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노력은 바로 사랑의 법칙이며, 사랑의 첫째 관심은 정의의 확립하는데 그 인공유산의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1974. 11. 25

신앙교리 성성 장관 세파 추기경

## 요십이 (73) 김병오



□시간안내□

### 루가 복음 해설

신자들의 묵상 길잡이 1,300원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 ◆ 이주간의 성경 ◆

- 16(월) 독서 (민수기 24:2-7, 15-17a)  
복음 (마태오 21:23-27 성서 p. 51)
- 17(화) 12월 17일 고유미사  
독서 (창세기 49:2, 8-10)  
복음 (마태오 1:1-17 성서 p. 1)
- 18(수) 12월 18일 고유미사  
독서 (예레미야 23:5-8)  
복음 (마태오 1:18-24 성서 p. 1)

- 19(목) 12월 19일 고유미사  
독서 (판관기 10:2-7, 24-25a)  
복음 (루 가 1:5-25 성서 p. 121)
- 20(금) 12월 20일 고유미사  
독서 (이사야 7:10-14)  
복음 (루 가 1:26-38 성서 p. 122)
- 21(토) 12월 21일 고유미사 (성 베드로 가나시오 사제학자 4, 27)  
독서 (아 가 2:8-14)  
복음 (루 가 1:39-45 성서 p. 123)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칠·도장·청부  
**대통**  
지을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 (25986)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 한약방  
※ 신자들의 집 ※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6544

※ 멋을 창조하는 집 ※  
사슴양장점  
※ 교우에게 특별봉사  
드레스 무료 제공  
김형택(마오로)  
전주체신청 앞  
전화 7404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성탄 위문품 의뢰 (12월 9일자 교구청 공문 제 74-29호)  
국토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쉬지않고 군 사물을 하는 군중 신부들 (고경훈, 성민호, 이수현, 서용복신부)에게도 어느때보다 뜻있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껏 돕고자 하오니, 오늘 주일에 특별 헌금과 위문품 및 위문편지를 준비하여 12월 20일까지 교구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가톨릭센타 부인회 연총친목회: 1974. 12. 16일 오후 2시 가톨릭센타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가톨릭센타 회원총회: 1974. 12. 20일 (금) 7시 30분  
장소: 가톨릭센타 회의실,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3. 전주 교구 각 본당 교육부장 회의: 오늘 오후 1시 가톨릭 센타에서. 교육 부장님들의 전원 참석 요망

(중양)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임원 개편  
고문: 김중순, 이복석, 강재희, 이상용, 천진, 김정기, 이용호, 이상신, 이상범, 엄경숙, 오재희  
회장단: 회장 김영진, 부회장: 김병구  
부장: <선교> 정주복, <재경> 이종숙 <교육> 박해근, <사회> 장남수 <부녀> 김영애, <애령회장>, 이갑진  
감사: 김귀권, 김제영, 구역회장, 반회장은 종전과같음
2.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판공성사: 빠짐없이 성사를 보시길
4. 지주교님을 위한 성금: 개인, 신심단체별로 사무실에서 모금함.
5. 성모종합 월례회: 오늘밤 7시 "릭키 예식장"에서
6. 영세식: 12. 22일 오전 9시 영세식 있음
7. 애령회소식 금암동 진마리아 매세자 사망시 조의금 협조에 감사 함.

(노충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철

1. 부녀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애령회 간부 임시회: 공식미사 후
3. 선임된 애령회 간부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회장: 이종재, 부회장: 이대환, 이정은  
총무: 김정순, 재무: 박규선
4. 본당 판공성사 실시 12. 20(남노), 21(중노 1가) 23(중노 2가, 신교동) 24(인후동, 우아동)
5. 성탄 신축 헌금에 감사합니다.  
박양님(남노) 3만원, 최순례(우아동) 500원  
누계 30,500원, 누계 1,845,152원

(덕진)

전화 ③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판공안내 12월 16, 17, 18일 (전당리), 14~16(전미송천), 20(금암), 23(누락자) ※성사표는 각 반장님

(복자)

전화 ⑤23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판공 성사 일정: 지난 주 동일 (판공비: 1인당 50원)
2. 교무금 납부 요망
3. 예비자 교리 남자(목) 저녁미사 후, 여자(일)공식미사 후, (수)저녁미사 후,  
2주간의 성미 7달8회, 누계 336말 8회

(서학동)

전화 ②272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본당 판공성사 일정  
19일 (1, 2, 3, 4, 5반), 20일 (6, 7, 8, 9, 10반), 21일 (11, 12, 13, 14반), 22일 (15, 16, 17, 18반 기타) 공무원과 학생은 토·일요일에
2. 상관 공소 회합 일정  
12. 17(내어두리), 18(석장리) 19(외어두리)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림  
사도 회장 이원재

1. 성탄 판공 성사일정  
동원산동(16), 서원산동, 중앙, 다가, 경원동(17) 풍남동(18), 동교동(19), 남노송동, 서교동(20), 전동, 기타(21)
2. 성탄 영세자 교리: 오늘부터 매일밤(영세 신청서에 신청바람)
3. 꼬미시음 월례회: 오늘 오후 1시 30분

금주의 숭정이 은인  
안 마리오(득수) 도립병원 내과과장  
애령회 특별헌금 8,895원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 김부 신태인 창제안인음	신용조합 월례회	3,250원	제 3 지구	창인동 등 황 등	청년회 창립 축하!	22,625원
		반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각 신심 단체 긴급 회의 성모회 월례회	9,830원			불우한 이웃을 도움시다	
제 2 지구	대 윤명중 야동동중	사도회 상임 위원회	2,170원	제 4 지구	중 앙 동복 진 학동 전 등	신용조합 월례회	44,679원
		임시 사도회 전례 위원회 월례회 성탄 특별 위문 헌금	32,385원 12,430원			애령회 간부 임시회 교무금 신입 요망 예비자(성탄시 영세)교리 판공 성사시 성사표 지참 꼬미씨음 월례회	
제 3 지구	고 염주현 산산산	이 향자(서울) 명단, 주소 보고.	2,665원	제 5 지구	남 원 주계 진	성탄 영세자 집중교리	11,355원
		영애 예수 순례에 의한 구원 기도 주일 학교 교리교사 회합 특별 사업에 협력합니다	10,095원 3,046원 7,755원			성탄시 다제로운 행사비 모금 성탄 성가 연습 실시 성탄 장병 및 불우한 이웃 돕기	